

흑사병·십자군전쟁·마녀사냥...편견에 감춰진 중세이야기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중세를 오해하는 현대인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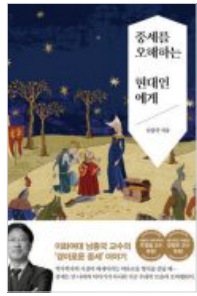
남종국 지음

중세 유럽은 '위조의 시대'였다. 그것도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그 양이 방대했다. '콘스탄티누스 기진장(齋進狀)'은 당시 최악의 위조문서였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온다. 콘스탄티누스가 자신의 나병을 치료해준 교황 실베스테르 1세에게 로마 서부 통치권을 교황에게 양도했다는 내용이다. 11세기 이후 교황들은 신성로마제국 황제와의 다툼에서 이 문서를 근거로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문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440년 이탈리아 인문주의자 로렌초 발라는 위조 행위를 '범죄, 살인, 재앙으로 규정'하며 날카롭게 비판했다. 교회가 범죄의 주체인데 이 마당에 교황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위의 내용은 중세 지중해 문명 교류의 역사 등을 연구해온 남종국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가 들려주는 경이로운 중세 이야기다.

남 교수의 신작 '중세를 오해하는 현대인에게'는



역사학자의 시선과 에세이라는 형식의 결합물이다. 저자는 지금까지 '지중해 교역은 유럽을 어떻게 바꾸었을까?', '이탈리아 상인의 위대한 도전' 등을 발간했다.

콘스탄티누스의 위조사례처럼 오늘날의 관점에서 중세는 이상하고도 낮은 세계다. 일테면 이런 것이다. 인간은 평등하지 않으니 신이 만든 신분질서를 지키라고 가르친 신학자를 비롯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믿는 광신자들, 이자는 죄악이며 대부업자는 지옥에 떨어진다고 여긴 사람들 등 다양한 사례가 담겨 있다.

책은 한마디로 '오해와 편견 뒤 감춰진 우아하면서도 울퉁불퉁한 이야기'인 셈이다. 그렇다고 중세가 마냥 어두운 시대인 것은 아니었다. 찬란한 고대문명과 오늘날의 현대라는 시간 사이에 놓인 시대였다.

"중세 유럽이라는 낯설고 이상한 세계를 경험하는 여행이 될 것이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미지의 세계에 대한 흥분과 설렘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언급처럼 책은 흑사병, 십자군전쟁, 마녀사냥으로 각인된 중세의 어두운 이면 외에도 중세가 가진 낯설고 특이한 면들이 담겨 있다.

주경철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는 추천사에서 "학계 중심으로 탁월한 학술적 성

취를 이룬 저자가 우아하고도 유려한 필체로 낯설고 기이하면서도 흥미진진한 역사 세계로 우리를 안내한다"고 찬탄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염병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즘이다. 중세에도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해 인구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교황이 거주하던 아비뇽도 상황이 심각했다. 4개월간 6만2000명이 사망했다는 것은 당시 상황이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당시 교황 클레멘스 6세는 아비뇽을 버리고 떠났다. 물론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사면을 해주고, 병의 원인을 찾도록 시신 해부 금지를 해제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교황의 주치의였던 기드 솔리아크는 도시에 남아 환자를 치료했다. 안타깝게 감염이 됐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지금의 프랑스 '몽펠리에대학병원'이 그를 기려 '기드 솔리아크 병원'이라고 명명된 것은 그러한 연유 때문이다.

아울러 교회가 성행위를 통제하고 불임을 악마가 벌인 짓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책 사냥꾼'으로 유명했던 페트라르카



중세는 '위조의 시대'라고 불릴만큼 위조가 성행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콘스탄티누스 기진장'이었다. 라 피엘로 작 '콘스탄티누스 기진장'.

기상천외한 발상이자 황당한 이야기이다.

또한 수도원 수도사들이 쓴, 마녀를 색출하고 고문하는 법을 다룬 '마녀를 심판하는 망치'라는 책이 당시 베스트셀러였다는 사실은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중세의 기이한 이야기들은 오늘날의 역사를 돌아보게 한다. 훗날 미래의 역사가들이 오늘 우리시대의

역사를 규정한다면 아마도 "무지몽매하고, 불관용적이며, 야만스러울" 것임은 자명하다.

저자는 말한다. 이처럼 시대를 비교하는 일은 "우리 시대의 한계와 편견을 직시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서해문집·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아무도 모르게 그들이 자랐다

강재남 지음

제6회 동주문화상 수상시집 '아무도 모르게 그들이 자랐다'가 발간됐다. 강재남 시인은 동주문화상 선정 직후 '시인 운동주의 자기 성찰, 고뇌하는 청년의 반성문 같은 시가 너무 아깝다. 시대처럼 울 아침을 기다리는 순결한 청년처럼 저도 그런 청년을 꿈꾸며 산 것 같다'고 말할 바 있다.

시집은 '기다림의 연속'에 대해 이야기한다. 서우후 시인은 이번 작품집에 대해 "어쩌면 그 기다림이 만나지 못한 '도착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기다림이라는 풍경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아무만지는 한 사람의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표현한다.

"그것은 그러므로, '덧없이 부유하는 나비 그리하여 나비', '당신이 잘 있으면 나는 잘 있습니다', '잠의 현상학', '수취인 불명' 등 모두 60여 편의 작품은 깊은 침잠과 연민, 속울음 같은 이미지가 투영돼 있다. 특히 작품 '빛'에 언급된 한 구절의 시는 먹먹함을 준다. "여름 사람이 사라진 길은 여름사람 영역입니다"는 존재와 기다림에 대한 성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숙고하게 한다. 단순한 기다림이 아닌 기다리는 객체의 영역까지도 존중하는 배려와 초월의 무게를 느끼게 한다.

시인은 지난해 여름 비를 좋아하는 딸(김희준 시인)을 잃는 참척의 아픔을 겪었다. 불의의 사고로 '빛줄기를 잡고 다른 행성으로 떠난' 이후 딸의 시집 '무무와 나나'가 제11회 시산맥작품상, 다층시단이 뽑은 2020올해의좋은시집에 선정되기도 했다.

강재남 시인의 '시인의 딸'에서 딸에게 건네는 "네 있는 곳이 막막하고 아득하여도 엄마가 곁에 있을 거야. 행성을 표류하는 김희준 시인에게 기별이 닿기를"은 오래도록 여운을 준다.



〈달소·1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선진 한국의 아버지

홍상화 지음

1961년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가운데 하나였다. 전쟁의 폐허와 상실감, 빈곤으로 조금의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30-50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세계 정상급 국가로 도약했다.

현재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세계 7위 수출대국, 세계 군사력 6위를 비롯해 GDP 북한의 53배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성장을 거듭했다. 이 같은 눈부신 성장은 우리가 지닌 잠재력과 '하면 된다'는 근기에서 비롯됐다.

한편으로 '절대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국가 도약을 구상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 오늘날의 산업화를 일군 토대가 됐다는 의미다. 소설 '선진 한국의 아버지'는 지난 역사 속 폭풍의 결실을 들여다본다. 이번 작품을 쓴 홍상화 작가는 제12회 이수문학상을 수상했으며 문예지 '한국문학' 주간과 인천대 국문과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홍 작가는 그동안 박정희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관심을 가져왔다. 소설은 지난 1997년 10월 '매일경제'에 연재된 바 있는 박정희의 독백을 담은 픽션을 제목을 바꿔 재출간한 것이다. 작품은 박정희 대통령이 10·26 사건 당시 총탄에 치명상을 입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의 순간을 작가의 상상력으로 재구성했다. 작가는 박정희를 단순한 독재자가 아닌 오늘날의 경제 기적을 일군 측면에서 다룬다.

한편 책에는 작가의 의도를 보충하는 자료들이 첨부돼 있다. '부록 1'에는 장례기간 중 주요 일간지에 실린 기사문음들이, '부록 2' (세계 속 '오늘의 한국')에는 현재 '선진국' 지위로 상승한 우리나라 위상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수록돼 있다. 〈한국문학사·1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신부 이태석

이종렬 지음

"나누기에 가진 것이 너무 적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겐 하찮은 1%가 누군가에게는 100%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아프리카 톤즈의 눈물을 닦아준 사람, 가난하고 불우한 이들의 영원한 친구 이태석 신부의 말이다.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에서 가난하고 아픈 주민들의 친구이자 의사, 사제로 지내다가 투병 끝에 하늘로 간 이태석 신부의 공식 정본 전기인 '신부 이태석'이 최근 출간됐다. 이 신부의 선종 10주년을 기념하는 책으로 이 신부가 남긴 친필 자료,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증언, 100여 장의 사진이 담긴 책은 '인간 이태석'의 삶과 '신부 이태석'의 길을 소개한다. 저자는 '간송 전형필', '아, 김수환 추기경' 등 한국 문화·사회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인물들을 조명해 온 이종렬 작가다.

'길', '운명', '사랑', '약속' 등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된 책은 이 신부가 사제로서의 꿈을 포기했던 시절, 톤즈의 처참한 환경에 두려움을 느꼈던 순간, 암 진단 후 괴로웠던 영적 투쟁의 시간 등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의 번민과 고뇌를 담고 있다.

저자는 이 신부의 삶을 복원하기 위해 편지, 이메일, 축일카드, 메모 등 작은 자료까지 꼼꼼히 섭렵했다고 밝힌다. 이 신부의 의대 동창, 살레시오회 동료 신부들, 톤즈에서 함께 지낸 봉사자들을 직접 만났다. 특히 이 신부가 톤즈로 선교를 떠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제임스 신부를 인터뷰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내면의 갈등과 갑작스럽고 짧았던 이별의 순간을 그려내며 이 신부의 마지막 모습까지 조명했다.



〈김영사·1만6800원〉
/전은재 기자 ejf621@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